

연구논문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집단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박종민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를 미시적 차원에서 다룬 본 논문은 전국표본조사자료를 활용해 집단멤버십과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인의 단체생활은 제한적이고, 사적이며, 협소하고, 비조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은 주로 귀속적 형태의 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신뢰유형을 경험적으로 구분한 결과 특정화된 신뢰 수준은 낮으나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지입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는 복잡해 집단지입이 반드시 일반화된 신뢰를 조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지입 유형이 민주시민의식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지만 정치행동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화된 신뢰는 민주시민의식과 정치행동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민주시민의식에 기여하지 못하며, 사회단체의 증가나 단체생활의 확산 자체가 시민덕목의 성장을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못할을 예증한다. 종합하면 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기초는 아직은 그렇게 넓고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사회자본, 사회신뢰, 민주주의

박종민은

미국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cmpark@korea.ac.kr

* 본 논문을 위한 연구는 2001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2년 미주리대학 정치학과 객원교수로 초청해 본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도철 교수님, 논문 초고에 대해 건설적 논평을 주신 고려대 김선혁 교수님, 그리고 유용한 심사평을 주신 익명의 평자들께 감사드립니다.

1. 머리말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활발하고 견고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Linz & Stepan, 1996; Diamond, 1999; Norris, 1999; Pharr & Putnam, 2000; Putnam, 2002; Skocpol & Fiorina, 1999). 특히 최근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자본의 강조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한 관심을 되살리고 있다. 사회자본론의 대표적 학자인 퍼트남(Putnam, 1993)은 시민관여의 네트워크가 상호성의 규범과 신뢰를 배양하며, 이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정치의식과 행동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Deth, Maraffi, Newton & Whiteley, 1999; Hadenius, 2001). 이와 시각은 다소 다르지만 또 다른 시민사회 연구자들은 활발한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저항하는 시민적 반대를 동원하여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Foley & Edwards, 1996; Edwards, Foley & Diani, 2001). 이처럼 활발하고 견고한 시민사회의 출현이 정치적 민주화 및 민주주의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에 긴요하다는 주장이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자본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간의 거시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그 관계의 기초가 되는 미시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아직 명료하지 못한 편이다(Brehm & Rahn, 1997). 이러한 공백을 다소 메우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를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사회자본론이 함축하는 것처럼 집단가입이 사회신뢰와 관련되는가? 집단가입 혹은 사회신뢰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혹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를 조장하는가? 집단가입 혹은 사회신뢰가 심리적 및 행태적 차원에서 민주 시민성을 촉진하는가? 본 논문은 최근 수집된 전국 표본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자본론이 함축하는 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 시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¹⁾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자본론의 주장을 간단히 개관한다. 둘째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와 신뢰의 개념화 및 측정 문제를 다룬다. 셋째는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간의 경험적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는 집단가입 및 사회신뢰와 민주시민성 간의 경험적 관계를 분석한다. 다섯째는 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기초를 추론한다.

2. 시민사회, 사회자본 및 민주주의

(1)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자본론의 학자들은 생존 가능한 민주주의는 활기 넘치고 견고한 시민사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호성의 규범과 신뢰를 배양하며,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을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활력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주요 지표인 조밀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광범한 사회신뢰는 안정적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토대를 강조한 대표적 사회자본론자인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민주적 거버넌스에 긴요한 시민사회의 활력성과 명시적으로 연결시켰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자율적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단체는 내부적 및 외부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내부적으로는 단체구성원들의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을 배양시키며, 외부적으로는 단체이익을 정치사회로 전달하여 이익대변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는 시민민주주의(*civic democracy*)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는 비록 사

회자본의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참여와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나라별로 민주적 거버넌스에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로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형성을 지적한 그들은 사회참여가 바로 참여적 시민문화의 사회적 근원임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시민협동의 성향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같은 사회적 태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바로 구성원들에게 협동과 상호성의 습관을 고취시키는 자발적 단체를 통해 배양된다고 보았다. 그들도 참여적 시민사회가 민주제도의 작동에 긴요한 정치문화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역할을 확인한 버바, 쉴로츠만 및 브래디(Verba, Scholzman & Brady, 1995)는 시민자발주의(*civic voluntarism*) 참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단체가입과 정치관여를 연결시키면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물리적 및 심리적 기술과 자원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사회단체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민주정치의 기술과 자원을 배양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치제도와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활력성을 반영하는 단체행동주의는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키는 구성개념이다. 사회자본을 통해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토대를 상기시킨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조정된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의 능률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들”이라고 규정하였다(Putnam, 1993). 이러한 정의는 뉴튼(Newton, 1999a)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이 3개의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상이한 현상, 즉 네트워크, 사회규범 및 결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원인을 결과로부터 구분하여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 네트

워크와 신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구조적 차원 :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본은 문화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 양자를 포함하는데, 구조적 차원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문화적 차원은 신뢰와 같은 사회적 규범을 가리킨다. 물론 사회신뢰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호성의 규범과 신뢰를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Newton, 1999a; Stolle, 2001). 여기서도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기보다 비대칭적이라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풍부한 단체생활의 경험을 통해 모르는 남들에 대해서 신뢰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모르는 남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이렇게 보면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는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들, 집단들 및 조직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Coleman, 1990). 따라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시적 인과관계는 조밀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협동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시민적 덕목을 배양시키고, 이러한 민주시민성은 궁극적으로 안정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민주시민성의 형성에 주는 영향이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Stolle & Ronchon, 2002; Stolle, 2001). 따라서 '좋은' 사회자본에 기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구분이 제시된다. 첫째, '좋은' 사회자본의 생성은 자발적 부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Putnam, 1993; Pharr, 2000; Newton, 1999a; Warren, 2001).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자발적 단체만이 민주시민적 덕목을 갖춘 시민사회의 출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자발적 단체만이 긍정적 사회자본을 생성한다면 이를 '나쁜' 사회자본을 생성할 수 있는 비자발적 단체와 구분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부 자발적으로 보이는 단체들이 실제로는 비자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이 경험적으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합을 탈퇴하면 해고되는 클로즈드 샵이나 가입해야 면허를 발급하는 직능단체는 퇴장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발적이라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둘째, 사회자본론의 학자들은 긍정적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부정적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분한다(Putnam, 1993; Pharr, 2000; Newton, 1999a). 내부의 사회관계가 계층적인 조직은 지배-복종, 후견인-피후견인 혹은 종속-착취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성의 형성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념할 것은 수평적으로 보이는 일부 단체들이 조직과 운영에 있어 수직적이고 집권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많은 사회단체들이 소수 임원들에 의해 집권적으로 조직되고 하향적으로 운영되는데, 시민사회의 활력을 상징한다는 시민단체들조차 “시민 없는” 단체라 불릴 정도로 소수 활동가들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유홍림, 2002).

전술한 두 구분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것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사회자본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공식단체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공식단체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턴(Newton, 1999a)이 주목한 것처럼 비공식 집단이 공식단체보다 사회자본의 생성에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공식단체보다는 비공식집단에서 보내기 때문이다(Uslaner, 1999). 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공식단체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사회자본의 생성에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퍼트남(Putnam, 1993)도 사회자본의 생성자로서 스포츠클럽이나 합창단처럼 취미서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유는 그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친밀하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카우프만(Kaufman, 2002)은 미국의 사회단체 전성시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발적 단체가 공동선을 조장하기보다 오히려 협소한 집단관심과 이익에 봉사하였음을 보여주어 시민단체주의의 미덕에 대해 반박하였다. 스톨리와 로촌(Stolle & Rochon, 2002)은 사회단체가 사회자본에 주는 영향이 단체의 활동유형 및 단체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모든 단체들이 긍정적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술한 네트워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적 차원: 사회신뢰

사회신뢰는 사회자본의 문화적 차원이다. 뉴턴(1999a)이 주목한 것처럼 사회신뢰는 “사람들이 동료시민들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를 말한다. 사회자본론의 학자들은 사회신뢰가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조장되며 그것은 공동선을 위한 사회협동과 조정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특정인들에게 국한되지 않은 일반화된 신뢰는 사람들의 선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뢰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Barber, 1983; Yamagishi & Yamagishi, 1994; Newton, 1999a; Fukuyama, 1995; Cook, 2001; Uslaner, 2002).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신뢰가 활력 있고 견고한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일반화된 신뢰만이 사회자본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선의를 기대하며 모르는 남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는 것이 민주시민성을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성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된 신뢰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이고 포괄적인 집단에서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사적 성격의 특정화된 신뢰는 ‘좋은’ 사회자본의 문화

적 차원이 아니다. 특정화된 신뢰는 사회적으로 동질적이고 배타적인 집단들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들 집단의 경우 자기편이라 간주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끈끈한 신뢰를 배양하지만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불신 혹은 심하면 적대감까지 조장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화된 신뢰는 오히려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공동선을 위한 협력행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화된 신뢰는 '나쁜' 사회자본 혹은 비(非)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Levi, 1996).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자본이 정치에 주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화된 신뢰와 특정화된 신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념화와 측정

사회자본은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개인들보다는 집합체의 특성을 나타낸다(Coleman, 1990; Putnam, 1993).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민주시민성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단가입과 신뢰를 개인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조작화하고자 한다.

1) 집단가입

본 연구는 개인들의 집단가입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공식단체의 회원 여부를 질문하였다; "귀하가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공식단체나 조직이 있습니까?" 응답자에게는 자신이 가입한 가장 중요한 공식단체의 이름을 최대 3개까지 응답하도록 허용되었다. 둘째는 사적 모임의 회원 여부를 질문하였다; "귀하가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사적 정기모임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응답자에게는 자신이 가입한 사적 모임의 이름을 최대 3개까지 응답하도록

허용되었다. 집단가입이 민주시민성에 주는 잠재적 영향이 가입 정도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가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작화되었다. 하나는 가입한 집단이 공식이든 사적이든 관계없이 가입한 집단 수에 기초하여 가입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입한 집단이 공식인가 혹은 사적인가를 구분하여 가입유형을 측정하는 것이다.

가입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공식단체 혹은 사적 모임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여 추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입유형을 측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자료가 특정 집단의 구성, 구조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발적-비자발적 혹은 수평적-수직적 단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사자료가 가입집단이 공식단체인가 혹은 사적 모임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유형을 공식단체든 사적 모임이든 전혀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자, 공식단체에만 가입한 공식가입자, 사적 모임에만 가입한 비공식가입자 및 공식단체와 사적 모임에 모두 가입한 동시가입자로 구분하고자 한다.

전술한 집단가입의 측정이 갖고 있는 한계는 집단가입 자체가 반드시 적극적 집단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²⁾ 그러나 현 방법은 기존의 경험연구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교해 몇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자신들이 가입한 공식단체 및 사적 모임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만일 있다면 이들 단체나 모임의 이름이 무엇인지 답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가입해 있는 단체나 모임의 이름을 답할 수 있는 응답자라면, 이는 그 단체 혹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적어도 자신이 회원인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형식적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회원인지조차 모른다면 단체나 모임의 이름을 말하기가 한층 어렵기 때문이다. 현 방식은 일단의 단체들을 하나씩 제시해가면서 가입 여부를 단답식으로 묻는 것보다 집단가입을 측정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2) 사회신뢰

본 연구는 사회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항은 광범하게 사용되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이 문항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앞부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측정하지만, 뒷부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이 아닌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뒷부분은 사회생활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인식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부분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뒷부분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사회환경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 이 문항은 신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미가 응답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주변의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남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셋째, 영어로 된 뒷부분은 원래 이중부정의 문장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 이러한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문항은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포함하였다.

전술한 문항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동-부동 형태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사람을 채용할 때 다른 사람이 능력이 더 있어도 기왕이면 친지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앞의 문항과 달리 이 문항은 친척 및 친구와 대비되는 모르는 남에 대한 태도를 직접 측정한다. 물론 이 문항이 연고자 등용이나 정실주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고용관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열린 태도를 반영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문항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족적 신뢰나 특정화

된 신뢰 측정과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두 문항을 결합하면 네 가지 사회신뢰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능력 있는 남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응답자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형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환경이 매우 위험해서 조심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능력 있는 남보다 친척이나 친구에 의존하려는 응답자들이 있다. 이들은 특정형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의 학자들은 주로 이 두 유형의 신뢰가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뒤의 분석은 특히 이들간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여기서는 또 다른 유형의 사회신뢰가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능력 있는 남보다는 친척이나 친구에 의존하려는 응답자들이 있다. 이들은 사적 성격의 의리형 신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능력 있는 남들을 고용할 정도로 구체화되거나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능력 있는 남을 포기하더라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들에 대해 의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넷째, 사회생활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지만 능력 있는 남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 응답자들이 있다. 이들은 객관적 성격의 능력형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남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회환경은 아니지만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호혜적 충성을 기대하기보다 모르는 남으로부터 유능한 역할수행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뢰는 선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기대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일반화된 신뢰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4.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1) 집단가입의 패턴

한국인들의 집단가입의 패턴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대다수 한국인들은 전문직업단체, 노동조합 혹은 시민단체 등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단체에 전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어떠한 공식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10명 중 1명 미만만이 겨우 하나의 공식단체에 가입하였으며, 2개 이상의 공식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민주화와 더불어 공식단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거의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입해 있다고 한 공식단체들조차 그 성격이 공민적(公民的)이지 않다는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공식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3명 중 1명은 가입한 단체가 동창회라고 한 반면, 5명 중 1명 미만이 가입한 단체가 직능단체나 봉사단체라고 하였다. 동창회는 회원자격이 누구에게나 부여되지 않고 출신학교를 매개로 구성되는 배타적 성격의 단체로 기본적으로 동문들간의 유대와 친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동창회가 '좋은' 사회자본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다. 우선 전술한 결과는 학연이

표 1
집단가입의 정도
(N=1,500)

가입 집단의 수	공식단체	사적 모임	공식단체+사적 모임
0	89.1%	41.1%	38.5%
1	9.3%	47.7%	42.7%
2이상	1.6%	11.2%	18.8%

표 2
가입한 공식단체의 유형

거주지단체	5.8%
학부모-교사단체	9.1%
직업, 사업관련 단체	17.3%
농업관련 단체	2.7%
노동조합	9.7%
공동소비조합	0.6%
자원봉사단체	16.3%
시민운동단체	2.8%
종교관련단체	2.9%
동창회	32.6%
정치인후원회	0.6%
정당	1.6%
스포츠, 레저 동호회	8.2%
재향군인회	1.0%
향우회	3.5%
기타	0.3%
(N)	(164)

주: 기재된 수치는 공식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각 유형의 단체를 언급한 응답자들의 퍼센트이다. 최대 3개까지의 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들 퍼센트는 직접 합산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라는 일반적인 관찰과 일치한다. 사회적 연고의 또 다른 기초라 할 수 있는 지연과 혈연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향우회에 가입해 있다고 한 응답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종친회에 가입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동창회가 지역연고를 갖는 중·고교 혹은 대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연과 학연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표 1>은 비록 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단체에는 가입해 있지 않지만 다수가 사적 모임에는 가입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5명 중 3명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사적 모임에 가입해 있고, 10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 사적 모임에 가입한 다중가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5명 중 2명은 어떠한 사적 모임에도 가입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이 공식단체가 아니라 사적 모임을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예증한다. 다수 한국인들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성격은 비조직적이고 사적이며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가입한 사적 모임 가운데서 두 가지 유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사적모임에 가입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거의 반수가 취미나 여가 등을 위한 친목모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3명 중 1명 이상은 사적인 동창모임을 언급해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학연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극소수만이 계모임을 언급해 한때 농촌지역에서 번창했던 금융목적의 계가 더 이상 사회적 네트워크의 기초로서 작동하고

표 3
가입한 사적 모임의 유형

직장동료들과의 사적 모임	9.9%
사회교육기관, 문화센터 회원들과의 사적 모임	1.4%
취미나 여가를 함께 하는 친목모임	45.5%
사업과 관련된 사적인 상부상조회	4.1%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사적 모임	2.0%
신용대부 등 금융목적의 계모임	3.6%
동창모임	37.8%
군친구모임	1.2%
고향친구모임	6.1%
신자모임	2.1%
상조회	2.6%
친척모임	2.0%
가족모임	1.4%
학부모모임	1.2%
자원봉사모임	0.7%
(N)	(884)

주: 기재된 수치는 사적 모임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각 종류의 모임을 언급한 응답자들의 퍼센트이다. 최대 3개까지의 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들 퍼센트는 직접 합산될 수 없다.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지연이나 혈연 역시 비공식 네트워크의 기초로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단지 20명 중 1명만이 고향친구모임, 그리고 극소수만이 친척이나 가족모임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공식단체와 관련해서 지적된 것처럼 동창모임의 지역연고가 학교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연과 학연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관계없이 가입한 집단의 수는 사회관여의 정도 혹은 수준을 보여준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많은 한국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최소한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명 중 3명은 공식단체든 사적 모임이든 어느 하나에만 가입한 단일가입자들이었고 5명 중 1명은 2개 이상의 집단에 가입한 다중가입자들이었다. 한편, 5명 중 2명은 어디에도 전혀 가입하지 않은 비가입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한국인들이 최소한도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긴 하나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단체생활(*associational life*)이 조밀하거나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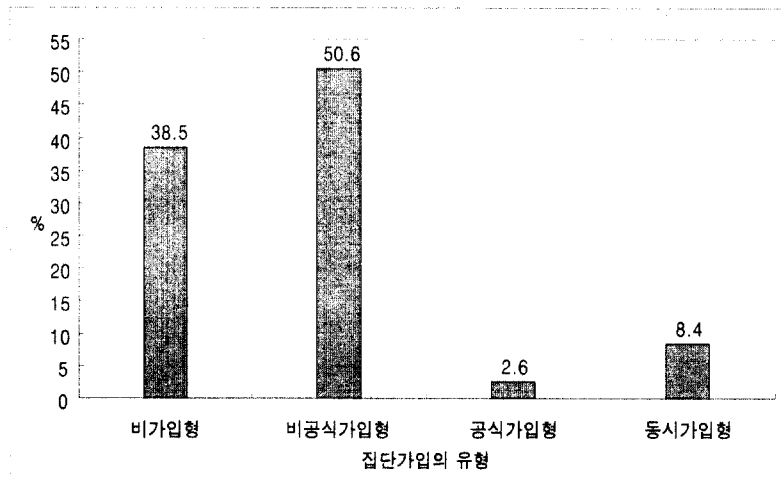
한편, 한국의 집단가입자들은 공식단체보다 사적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단체든 사적모임이든 집단에 가입해 있다고 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절대 다수가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사적 모임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5명 중 2명이 취미와 여가 등을 위한 친목모임을, 10명 중 3명이 비공식적 동창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임을 시사한다.

공식단체의 가입 여부와 사적 모임의 가입 여부를 결합하면 네 가지 집단가입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에 보기에 것처럼 사적 모임에만 가입한 비공식가입자의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식단체에만 가입한 공식가입자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공식단체와 사적 모임 모두에 가입한 동시가입자는 10명 중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식단체나 사적모임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는 비가입자는 5명 중 2명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다수의 한

국민들이 주로 사적 모임을 통해 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현재 한국사회의 경우 공식단체 가입 여부로 측정된 '좋은' 사회자본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조밀하거나 활력이 넘친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관이나 선출된 임원 및 임명된 직원을 갖춘 공식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입해 있다는 공식단체들도 그 성격이 덜 공민적이고 구조와 운영이 집권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은 민주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각종 사회단체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신 그들은 사적 성격의 친목모임이나 동창모임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기와 동질적인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적 모임에 열심일 뿐 보다 공민적 성격의 사회단체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로 가입한 공식단체 혹은 사적 모임은 귀속적 특성에 기초한 집단을 포함한다. 적어도 의견상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질적 배경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bridging*) 포괄적 네트워크라기보다 동질적 배경의 사람들을 묶어주는(*bonding*) 배타적 네트워크로 보인다(Newton, 1999a).

그림 1
집단가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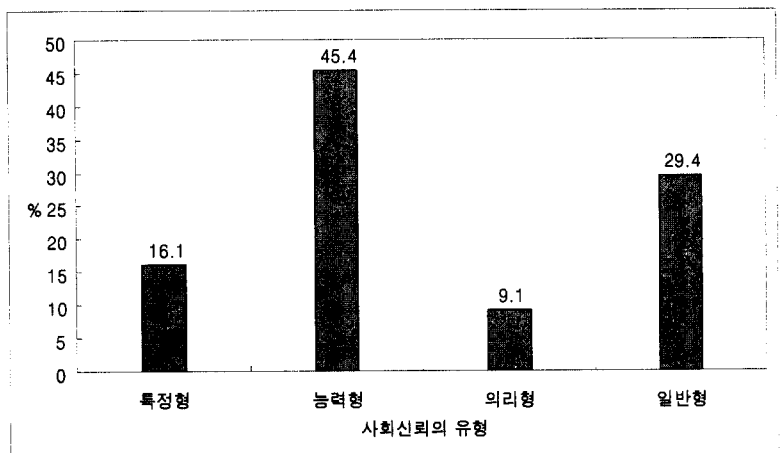


2) 사회신뢰의 패턴

한국인들의 사회신뢰의 패턴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2>에 보고된 것처럼 10명 중 3명은 일반화된 신뢰를 견지하기 위해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명 중 1명은 남보다는 친척이나 친구에 의존하려는 특정화된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있는 발견은 다수의 응답자들이 객관적 능력에 기초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르는 남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견지하는데, 이는 선의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남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면 이들의 신뢰는 점차 일반화된 신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10명 중 1명은 사적인 의리에 기초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공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구체화되지 못한 채 주변의 가까운 자기 사람들에 대한 의리를 우선시하고 있다.

적어도 일반화된 신뢰라는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여할 '좋은' 사회자본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나쁜' 사회자본에 기여하는 특정화된 신뢰의 수준은 비교적

그림 2
사회신뢰의 유형



낮지만 그렇다고 ‘좋은’ 사회자본에 기여하는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인간본성의 선함을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사회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능력에 기초한 객관적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능력형 신뢰가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신뢰유형인 것이다. 이는 ‘좋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일반화된 신뢰보다는 덜 확실적이고 더 조건적이지 만 ‘나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특정화된 신뢰보다는 덜 사적이고 더 객관적인 것이다.

3)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동시가입형은 일반화된 신뢰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일반화된 신뢰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범주는 비가입자가 아니라 공식가입자였다. 둘째, 동시가입자는 특정화된 신뢰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특정화된 신뢰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범주는 비가입자가 아니라 동시가입자였다.

한편, 공식가입자는 능력에 기초한 신뢰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비공식가입자는 의리에 기초한 신뢰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비록 표본에 포함된 공식가입자의 수가 작아 신뢰할 만한

표 4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비가입형	비공식가입형	공식가입형	동시가입형
특정형 신뢰	14.0%	18.2%	23.1%	11.2%
의리형 신뢰	8.3%	10.4%	5.1%	5.6%
능력형 신뢰	46.4%	43.3%	59.0%	48.8%
일반형 신뢰	31.1%	28.1%	12.8%	34.4%
(N)	(578)	(759)	(39)	(125)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결과는 단체생활 자체가 반드시 일반화된 신뢰를 높이거나 특정화된 신뢰를 낮추는 것은 아니며, 단체유형이나 가입형태가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입정도를 변수로 사용한 분석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째, 공식단체든 사적 모임이든 최소 어느 하나에 가입한 사람들과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일반화된 신뢰나 특정화된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어떤 집단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일반화된 신뢰를 높이거나 특정화된 신뢰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식단체나 사적 모임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어느 하나에만 가입한 사람들 및 둘 이상에 가입한 사람들 간에도 일반화된 신뢰 혹은 특정화된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입한 집단의 수가 단순히 늘어남에 따라 반드시 일반화된 신뢰가 높아지거나 특정화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가입 자체와 일반화된 신뢰 간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예증한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의 두 핵심 구성요소가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왜 집단가입 자체가 일반화된 신뢰 혹은 특정화된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일까? 기존의 이론과 연구는 시민덕목을 생성하는 집단은 그 성격이 수평적이고 자발적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토크빌(Tocqueville, 1956)은 친구나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이 아니라 자발적 성격을 갖는 이차집단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퍼트남(Putnam, 1996)은 “수직적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조밀하고 중요한지에 관계없이 사회신뢰와 협력을 지탱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수평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스톨리와 로촌(Stolle & Rochon, 2002)은 이질적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동질적으로 구성된 단체보다 일반화된 신뢰를 생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 모든 단체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워렌(Warren, 2001)은 상이한 종류의 단체들이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이 다르며, 그 영향이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지적은 전술한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앞서 제시된 것처럼 한국인들이 주로 가입한 집단은 동창회나 동창모임이다. 공식단체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3명 중 1명이 동창회를, 사적 모임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5명 중 2명이 동창모임을 언급하였다. 동창회나 동창모임은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귀속적인 형태의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의 집단은 회원간에는 끈끈한 유대와 단결을 강화시키지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 사례 수가 적어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동창회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직능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특정화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대 7%). 또한 동창과의 사적 모임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직장동료와의 사적 모임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특정화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대 12%).⁴⁾ 이러한 발견은 규모가 협소한 사적 모임에서의 대면적 상호작용도 반드시 일반화된 신뢰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입한 공식단체 혹은 사적 모임이 폐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난 결과는 별로 의외가 아니다.

사회생활에 위협이 가득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공식단체나 사적 모임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일부는 전혀 가입해 있지 않다고 한 사람들만큼이나 특정화된 신뢰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특정화된 신뢰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이 보호되면서 유지되거나 혹은 강화될 수 있다.

한편 동시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일반화된 신뢰가 훨씬 더 높거나 특정화된 신뢰가 훨씬 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된 신뢰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특정화된 신뢰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동시가입자는 비공식가입자나 공식가입자와 비교해 일반화된 신뢰 및 특정화된 신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차이가 가입집단의 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부 비공식가입자도 동시가입자처럼 둘 이상의 사적 모임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어쩌면 사회신뢰에 중요한 것이 가입집단의 수가 아니라 가입집단의 다양성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비공식가입자가 가입한 사적 모임은 주로 친구모임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적 모임에서는 친지의 경계를 넘어서 모르는 남들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사적 모임과 공식단체 양자에 가입한 동시가입자는 다양한 단체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신뢰의 범위를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술한 결과는 단체생활의 경험이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이라는 사회자본론의 기본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체가입 자체보다 단체유형이나 가입형태가 긍정적 사회자본에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예증하는 것이다. 일반화된 신뢰는 친지의 경계를 넘어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서 배양되는 것인데, 한국인들이 가입해 있는 많은 집단들은 그러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집단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어떤 유형의 집단들이 얼마나 존재하며 시민들이 어떤 유형의 집단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가 시민사회의 활력성과 견고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술한 결과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및 문화적 차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일반화된 신뢰에 항상 긍정적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흔히 가입해 있는 동창회와 같이 '묶어주는' 네트워크는 오히려 패거리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대립, 반목 및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연계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이 "연결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묶어주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공식가입자 혹은 비공식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오히려 특정화된 신뢰를 더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이는 폐쇄적인 공식단체 혹은 사적 모임이 내집단에 대해서는 유대적 신뢰를, 외집단에 대해서는 대립적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델헤이와 뉴턴(Delhey & Newton, 2002)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신뢰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요인, 예를 들면 개인적 성공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혹은 우리 사회에서 계층적 집단주의라는 구조와 문화가 단체생활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를 서구사회에서와 달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Kim, 1998).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공식단체나 사적 모임의 수가 급증하는 것 그 자체가 일반화된 신뢰의 성장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사회단체의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981년 38%, 1990년 34%, 1996년 30%로 낮아지고 있다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보고는 전술한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다.

5. 사회자본과 민주시민성

1) 집단가입과 민주시민성

사회자본론의 학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민주시민성, 즉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단체생활이 단체구성원들로 하여금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배양하고 참여의 기술과 자원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집단가입이 민주시민성에 기여하는 것일까?

〈표 5〉는 집단가입의 유형에 따라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표 5
집단가입의 유형과
민주시민성

	비가입형	비공식가입형	공식가입형	동시가입형	유의미성	(N)
민주주의 지지	2.13	2.12	1.96	2.18	n. s.	(1, 476)
권위주의 반대	2.48	2.57	2.40	2.44	n. s.	(1, 500)
정치관용·타협	1.47	1.36	1.20	1.41	*	(1, 499)
사회적 다원성	1.18	1.22	1.14	1.18	n. s.	(1, 500)
정치참여	1.34	1.73	2.38	2.43	*	(1, 360)
선거적	0.93	1.08	1.38	1.25	*	(1, 361)
비선거적	0.41	0.65	0.98	1.19	*	(1, 499)
정치적 효능감	0.75	0.85	1.05	1.03	*	(1, 500)
정치적 관심	0.77	0.95	1.04	1.16	*	(1, 500)

주: 기재된 수치는 민주시민성을 나타내는 각 지표의 평균점수이다.

* $p < .01$, ** $p < .05$.

있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⁵⁾ 혹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⁶⁾의 경우 가입자들과 비가입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기대와 달리 집단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가입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민주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도 혹은 권위주의를 반대할 가능성이 더 낮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위한 시민적 저항에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계되지 않은 사람들도 연계된 사람들 못지 않게 민주화를 지지함을 보여주어, 정치적 맥락이 시민관여와 민주주의 지지 혹은 권위주의 반대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Booth & Richard, 1998).

둘째, 집단가입과 민주규범 수용 간의 관계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놀랍게도 비가입자들이 정치적 타협과 관용의 규범⁷⁾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공식가입자들은 그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한편, 다원적 사회질서⁸⁾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가입자들과 비가입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비가입자들도 가입자들만큼 다양하고 다원적인 사회질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심리적 및 행태적 차원의 정치참여의 경우 집단가입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가입자들은 비가입자들보다 정치참여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정치참여의 가능성은 비가입자들이 가장 낮았고 동시가입자들이 가장 높았다. 특히, 동시가입자들은 비가입자들보다 비선거적 정치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한편, 집단가입자들은 비가입자들보다 정치적 관심¹⁰⁾이 더 높고, 정치적 효능감¹¹⁾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술한 결과는 집단가입과 민주시민성 간의 관계가 복잡함을 시사한다(유재원, 2000). 특히, 집단유형에 따라 집단가입이 일부 민주규범과 덕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집단가입이 정치참여에 확연한 차이를 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흔히 가입하는 귀속적 성격의 집단들은 공동선보다는 배타적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집단들은 이익대변을 위해 구성원들을 정치과정에 동원시키지만 내집단에 대한 신뢰와 외집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에서 집단가입자들이 비가입자들보다 정치행동성은 강하지만 민주주의식은 오히려 약하게 나타났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단체생활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배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여적 정치행동의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신뢰와 민주시민성

사회자본의 문화적 측면인 사회신뢰는 참여적 정치문화의 토대이다. 사회자본론의 일부 학자들은 사회신뢰가 사회적 네트워크와는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이다(Uslaner, 1999). 민주주의에서 신뢰의 기능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 단체에 가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선을 위한 집합행동에 보다 쉽게 관여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일반화된 신뢰가 높은 공동

체의 구성원들은 보다 쉽게 이웃과 연계되어 있고, 함께 사회단체에 가입하며, 공공영역에서 더불어 행동한다. 일반화된 신뢰는 공동선을 위한 집합행동을 조정하고 촉진시키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임혁백, 1999). 이와는 달리 신뢰의 범위가 내집단에 국한된 특정화된 신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공민생활을 회피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일반화된 신뢰는 시민사회의 정치역량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과연 일반화된 신뢰가 민주시민성에 기여하는 것일까?

<표 6>은 신뢰 유형에 따라 민주시민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 지지 혹은 권위주의 반대의 경우 신뢰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형 신뢰자들은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권위주의를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발견은 일반화된 신뢰의 축적이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회자본론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타협이나 관용 혹은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의 경우도 신뢰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 신뢰자들은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사회적 다원성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편, 자기 집단 사람들을 챙기려는 의리형 신뢰자들은 관용이나 타협의 민주적 규범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셋째, 정치관여와 참여의 경우 신뢰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 신뢰자들은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일반화된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은 선거적 참여뿐만 아니라 비선거적 참여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선거적 참여에 가장 소극적인 범주는 특정형 신뢰자들이 아니라 의리형 신뢰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의리형 신뢰자들은 비선거적 참여에도 가장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일반형 신뢰자들은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정치적으로 자신감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일반화된 신뢰는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형 신뢰자들은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민주주의를 더 열망하고, 권위주의를 더 반대하며, 관용과 타협 및 다원적 사회질서의 미덕을 더 지지하고,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더 자신감을 나타내고,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자기 집단 사람들을 챙기는 의리형 신뢰자들이 특정형 신뢰자들보다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일반화된 신뢰는 특정화된 신뢰나 의리에 기초한 신뢰, 심지어 능력에 기초한 신뢰보다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에 더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시민성에 기여하는 일반화된 신뢰의 역할을 재차 확인해 주며, 일반화된 신뢰가 민주적 거버넌스에 긴요한 긍정적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신뢰의 유형이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6
사회신뢰의 유형과
민주적 시민성

	특정형	의리형	능력형	일반형	유의미성	(N)
민주주의 지지	2.09	2.13	2.04	2.28	*	(1,476)
권위주의 반대	2.44	2.34	2.52	2.62	*	(1,500)
정치관용·타협	1.35	1.17	1.45	1.42	*	(1,499)
사회적 다원성	1.09	1.08	1.22	1.26	**	(1,500)
정치참여	1.60	1.50	1.62	1.85	**	(1,360)
선거적	1.06	1.07	0.98	1.14	**	(1,361)
비선거적	0.53	0.42	0.64	0.68	**	(1,499)
정치적 효능감	0.77	0.71	0.82	0.93	*	(1,500)
정치적 관심	0.83	0.81	0.90	0.97	n. s.	(1,500)

주: 기재된 수치는 민주시민성을 나타내는 각 지표의 평균점수이다.

*p<.01, **p<.05.

6. 맺음말: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적 기초

활력 있고 견고한 시민사회는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을 배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점이 광범하게 수용되어 있다. 토크빌의 영향을 받은 사회자본론의 학자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자발적 사회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들은 효과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공동선을 위해 함께 모이고 행동하는 참여적 시민공동체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체에서 본 논문은 조사자료를 활용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체생활의 경험이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여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함의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단체에 전혀 가입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적 모임에 가입해 있었다. 둘 이상의 공식단체나 사적 모임에 가입한 다중가입자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단체생활이 제한적이고, 사적이며, 협소하고, 비조직적이고, 배타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경험적으로 신뢰 유형을 구분한 결과 특정화된 신뢰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일반화된 신뢰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적 성격의 신뢰보다는 비(非)사적 성격의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능력 있는 남들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견지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을 쉽게 믿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 유형의 구분 없이 한국 사회를 단순히 저(低)신뢰사회로 기술하는 것이 과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Fukuyama, 1995; 박찬웅, 1999).

셋째, 다수 한국인들이 가입해 있는 공식단체나 사적 모임은 주로 귀속적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성격의 집단에 가입한 사

람들은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집단에 대한 신뢰, 외집단에 대한 불신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단가입과 사회신뢰 혹은 민주시민성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집단유형에 따라 집단가입이 일반화된 신뢰가 아니라 특정화된 신뢰를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론에서 가정된 단체생활과 신뢰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예증하였다. 그리고 공식단체와 사적 모임에 모두 가입한 사람들은 공식단체에만 가입한 사람들 혹은 사적 모임에만 가입한 사람들보다 일반화된 신뢰가 더 높고 특정화된 신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혼성형 가입자들이 단일형 가입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집단가입 유형에 따라 민주주의 지지, 권위주의 반대 혹은 다원주의 수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 및 정치참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단체가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지만 정치 과정에 동원하거나 정치자원을 제공하는 데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민주적 시민의식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해 준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급증이나 단체생활의 확산 자체가 민주적 시민덕목의 성장을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못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일반화된 신뢰는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화된 신뢰는 민주주의 지지 혹은 권위주의 반대를 높이며, 정치관용이나 타협 및 다원주의라는 민주규범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신뢰는 정치관여와 정치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화된 신뢰나 의리에 기초한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은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민적 기초는 지난 15년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넓고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통시민들은 공공정신과 시민덕목이 반영

된 단체생활로부터 떠나 있으며, 이는 결국 생존 가능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직 한국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료시민들간에 상호성의 규범과 신뢰를 배양할 정도로 조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각종 사회단체에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네트워크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존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도 특정한 정체성이나 협소한 이해관계에 기초해 있고 귀속적인 사회조직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태와 사회신뢰의 유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민사회적 토대가 깊고 넓지 못함을 시사한다.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사회단체들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적 시민덕목을 배양하는 데는 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회단체의 증가 자체가 반드시 성숙한 시민사회를 보장하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내집단의 결속만을 강화하여 패거리를 형성하고 특수주의와 후견주의를 조장하는 사회단체의 증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대립, 반목,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여 비(非)시민사회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 주

- 1) 이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는 2001년 11월에 실시된 가구방문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본은 다단계 층화집락표집 방식에 의해 선정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1,668명에 대한 면접이 완성되었으며, 표본 대표성을 위해 지역,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두었다.
- 2) 공식단체 가입을 측정할 때 신앙활동을 위한 교회, 사찰 등의 가입은 제외하였다.
- 3) 이중부정의 문장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의 문장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할수록 좋다”로 번역하였다.
- 4) 취미와 여가 등을 위한 친목모임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들도 사적 동창모임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들만 큼이나 특정화된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대 17%).
- 5)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점수(0~3점)는 다음 3개 문항에 대한 민주적 반응의 수로 계산하였다; (1) 완전 독재를 1점, 완전 민주주의를 10점으로 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몇 점 정도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0~5=0, 6~10=1) (2) 완전 부적합을 1점, 완전 적합을 10점으로 할 때 민주주의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5=0, 6~10=1) (3) 정치체제에 관한 다음의 견해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①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부형태보다 항상 더 낫다 (=1) ②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더 낫다(=0) ③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0).

- 6)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 점수(0~3점)는 다음 3개 문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수로 계산하였다: (1) 국회와 선거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정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야당은 없어야 한다 (3) 군이 나서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 7) 정치관용과 타협의 규범에 대한 지지 점수(0~2점)는 다음 2개 문항에 대한 민주적 반응의 수로 계산하였다: (1)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2)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허용해야 한다.
- 8) 사회적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 점수(0~2점)는 다음 2개 문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수로 계산하였다: (1) 사람들이 단체를 많이 결성하면 공동체의 조화가 깨질 것이다 (2)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너무 다양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 9) 정치참여 점수(0~9점)는 다음 9개 유형의 정치활동에 참여한 수로 계산하였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1) 투표했는지, (2) 정당연설회나 지지대회에 참석하였는지, (3)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권유했는지, 지난 3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4) 공무원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5) 지방의원, 국회의원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6) 정당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7) 시민, 사회단체를 접촉한 적이 있는지, (8) 언론기관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 (9) 시위, 농성,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선거적 정치참여 점수(0~3점)는 (1)~(3)에 참여한 수로 계산하였고, 비선거적 정치참여 점수(0~6점)는 (4)~(9)에 참여한 수로 각각 계산하였다.
- 10) 정치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2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점수(0~2점)는 각 문항의 응답 범주를 둘로 부호화한 후 계산하였다: (1)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많다(=1), ② 약간 있다(=1), ③ 별로 없다(=0), ④ 전혀 없다(=0), (2) 신문, 라디오 TV 등의 정치관련 뉴스를 얼마나 보거나 들으십니까? ① 거의 매일(=1), ② 일주일에 3~4번(=1), ③ 일주일에 1~2번(=0), ④ 한달에 1~2번(=0), ⑤ 전혀 보거나 듣지 않는다(=0).
- 11) 정치적 효능은 다음 2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점수(0~2점)는 첫째 문항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둘째 문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결합하여 계산하였다: (1) 나는 정치에 참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 참고 문헌

- 박찬웅.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평론》 5: 6~32.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유홍립. 2002. "NGO 리더십의 문화적 분석," 박종민 편,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박영사.
- 임혁백. 1999. "신뢰와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평론》 5: 33~48.

- Almond, Gabriel A. &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nfield, Edward.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Barber, Bernard.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ooth, John A. & Patricia Bayer Richard. 1998. "Civil Society, Political Capital and Democratization in Central America," *Journal of Politics* 60(3): 780~800.
- Braithwaite, Valerie & Margaret Levi(eds.). 1998.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rehm, John &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oleman, James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Belknap.
- Cook, Karen S. (ed.). 2001. *Trust in Socie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elhey, Jan & Kenneth Newton. 2002. "Who Trusts? The Origins of Social Trust in Seven Nations," Working Paper FS III 02-402.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WZB).
- Deth, Jan W. van, Marco Maraffi, Ken Newton & Paul F. Whiteley(eds.). 1999.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dwards, Bob, Michael W. Foley & Mario Diani(eds.). 2001.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nover, NH: Tufts University.
- Foley, Michael W. & Bob Edwards. 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7(3): 38~52.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Hadenius, Axel. 2001. *Institutions and Democratic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ufman, Jason. 2002. *For the Common Good? American Civic Life and the Golden Age of Frater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ong Wan. 1998. *The Korean Political Culture in Conflict: Hierarchy vs. Individualism*. Seongnam: Sejong Institute.
- Levy, Margaret. 1996. "Social Capit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and Society* 24(1): 45~55.
- Linz, Juan J. &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1999a.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 Newton & Paul F. Whiteley(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 Democracy*: 3~24. London: Routledge.
- _____. 1999b.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ris (eds.),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169~18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ed.). 1999. *Critical Citize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harr, Susan J. 2000. "Officials' Misconduct and Public Distrust: Japan and the Trilateral Democracies." In Susan J. Pharr & Robert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173~20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harr, Susan J. & Robert D. Putnam.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_____ (ed.). 2002.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kocpol, Theda & Morris P. Fiorina (eds.).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tolle, Dietlind. 2001. "Clubs and Congregations: The Benefits of Joining an Association." In Karen S. Cook (ed.), *Trust in Society*: 202~244.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olle, Dietlind & Thomas R. Rochon. 2002. "Are All Associations Alike? Member Diversity, Associational Type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In Bob Edwards, Michael W. Foley & Mario Diani (eds.), *Beyond Tocqueville: Civil Society and the Social Capital Deb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143~156. Hanover: Tufts University.
- Tocqueville, Alexis de. 1956. Richard D. Heffner (e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entor.
-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ren, Mark E. (ed.). 1999.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amagish, Toshio & Midori, Yamagish.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economics (public choice theory) critique of government failure. But NPM—one of the management mechanisms of welfare state crisis—has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weakening the legitimation of democratic state. This article criticizes atomic ontology, Human theory of causality,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substance of NPM, and suggests that the conception of governance from institutionalism is required for government reformation model.

Key Word : critical realism, NPM, governance, empirical realism

5.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Group Membership, Social Trust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Korea

Chong-Min Park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icro-level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the analysis of a recent national sample survey. It is discovered that associational life of the Korean people as a whole is largely limited, private, informal and unorganized. A typological analysis of social trust reveals that levels of generalized trust among the Korean people are not high although those of particularized trust are relatively low. It also is found that group membership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generalized trust or decrease particularized trust. Involvement in social networks does not promote democratic orientations; it merely leads to more active involvement in the political process. However, generalized trust motivates the Korean

people to embrace democracy and reject its alternatives and to get involved in the political process psychologically or behaviorally.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ivic basis of new democracy in Korea is shallow and narrow and that the proliferation of association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 civil society.

Key Word : social capital, social trust, democratic citizenship

6. Support for Democracy and Economic Evaluations: The Case of South Korea

Ah-Ran Hwang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economic perceptions in shaping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Korea. Support for the new democratic regime in Korea is expected to heavily depend on the public perceptions of the economy considering that Korea recently experienced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a decade after its democratization, and furthermore, the economic performance by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was quite successful.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ssessments of economic performance are directly linked to the empirical support for democracy, which is based on citizens' political experiences on the workings of the democratic regime. The evidence, to be sure, is consistent with the standing claim that effectiveness is a condition